



## 갑작스런 몸 움직임, 뇌졸중 유발 가능성

초인종이 울릴 때 뛰어나가는 것과 같은 갑작스런 움직임이 뇌졸중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영국 BBC 방송이 보도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대학 과학자들이 가장 일반적인 뇌졸중이자 혈전이 뇌동맥을 막아 발생하는 허혈성 뇌졸중 환자 150명을 조사한 결과 20% 이상이 갑작스런 소음이나 도움을 청하는 소리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몸을 갑자기 움직인 뒤 2시간 안에 뇌졸중이 시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금까지 과도한 신체적 움직임이 한 시간 안에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이와 비슷한 요인이 허혈성 뇌졸중을 유발하는지는 분명치 않았었다. 갑자기 몸을 과도하게 움직이면 동맥에서 혈전 조각이 떨어져 나와 심장 주변 혈관을 막으면서 심장마비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자인 실비아 코턴 박사는 "허혈성 뇌졸중 발생기전은 부분적으로는 심장마비와 유사할 것으로 보이지만 심장마비보다는 훨씬 복잡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번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향입과 흡연처럼 장

기적으로 허혈성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요소 외에 단기적으로 허혈성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위험 요소들을 확인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또 "특히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초인종이나 전화벨처럼 익숙하지만 사람을 놀라게 하는 것에 갑자기 노출되는 것이나 감정적인 반응 등이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뇌졸중협회의 요인 리더단은 "이번 연구자들은 적은 수의 환자들을 조사했고 특정 유형의 뇌졸중은 제외됐다"며 "이런 연구는 해답보다는 더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사람들이 이 연구결과를 보고 두려워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뇌졸중 발생에 대해서는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2002.2.10)

## “흡연, 디스크 발생· 재발 위험 증가시켜”

담배를 많이 피우면 추간판 탈출증(디스크)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수술후에도 결과가 좋지 않아 재발위험이 증가한다는 임상조사결과가 나왔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 서울병원의 디스크 전문센터 최용기 박사팀은 22일 디스크수술 후의 후유증으로 재수술을 한 디스크 재수술 환자 80명(남 58명, 여 22명)을 대상으로 흡연과 디스크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흡연기간과 흡연량에 비례해서 디스크 수술 후 재발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임상분석에 따르면 조사대상 환자를 흡연군(53명)과 비흡연군(27명)으로 나눠 디스크 재수술 후 얼마나 증상이 호전됐는지를 알아보는 요통수치를 비교한 결과, 비흡연군은 80.5%의 높은 증상개선 효과를 보인데 반해 흡연군의 경우 68.9%로 디스크 재발위험이 비흡연군에 비해 훨씬 높았다.

또 수술 후 척추뼈가 유합되는 치료기간도 비흡연군은 평균 3개월이었으나 흡연군은 평균 45개월로 15개월이 더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 박사는 "특히 30년 이상 매일 한갑 이상의 담배를 피운 한 환자의 경우 디스크 수술후 10개월만에 재발, 재수술을 받는 등 흡연기간과 흡연량이 디스크 발생과 재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최 박사는 "장기간에 걸친 과도한 흡연이 디스크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재발위험을 증가시키는 이



유는 니코틴이 모세혈관을 수축시켜 디스크로 영양분이 전달되는 것을 막아 디스크가 쉽게 닳아버리는 퇴행성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향신문, 2002.2.22)

## 소변 혈뇨, 질병발견 못해도 정기검사를

진료를 하다 보면 환자들이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온다며 놀라오는 경우가 자주 있다. 직장에서 건강진단을 받았는데 정밀검사를 받으라고 했다며 오기도 한다.

소변에 적혈구가 나오니 정밀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내밀기도 한다. 아무런 나쁜 짓을 한 것도 없는데 집에서 의심을 받았다며 이상하다는 것이다.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것과 염증세포가 나오는 것은 다르다. 외도로 발생하는 성병의 경우 소변에 염증세포가 나온다. 그러나 적혈구가 나오는 경우는 소변이 만들어지는 곳에 출혈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변이 빨게 육안으로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현미경으로 볼 때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느 곳에서 출혈이 있는지를 검사하고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소변이 배출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콩팥에서 소변이 만들어져 요관을 거쳐 방광에 고여있다 일정량이 모이면 배뇨를 하게 된다. 소변에 혈액이 보인다는 것은 여기에 관여되는 기관이 손상을 받았다는 것이다.

중년에는 성인병도 많고 아무래도 종양에 대해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 신장암, 방광암 등은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다. 혈뇨가 있었다면 특별한 질병을 발견하지 못했더라도 정기검사를 받는 게 바람직하다.

(한국일보 2002.2.22)

## 암치료 민간요법 조심하세요

보건복지부가 '이달의 건강길라잡이' 주제를 암으로 정하고 국립암센터 이진수 병원장 초청강연회를 여는 등 관련 질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암은 매년 세계적으로 1,000만명이 발생하고 있으며 650만명이 사망하는 질환.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불치의 병이 아니라 치료가 가능한 만성질환이라는 것이 보건당국의 입장이다.

이진수 박사에 따르면 암은 누

구나 걸릴 수 있다. 특히 고령화와 발암물질의 노출증가로 위험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전이나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어떤 요소가 더 큰 역할을 하는지 명확하게 규명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대장암과 같이 유전적인 영향이 밝혀지거나 암발생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질환이 있다면 주기적인 검사와 조기진단·치료를 통해 발생을 낮출 수 있다.

암은 민간요법으로 치료하려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 기도, 약초, 발침, 특정음식을 먹고 극복했다는 사람도 있지만 이는 민간요법의 효과이기 보다는 대부분 수술이나 항암치료를 받은 후 치유가 된 것이다.

간혹 별다른 치료 없이 저절로 사라지는 '기적'도 있지만 그것 역시 암 환자 1~2만명 가운데 한명 정도에 불과하다. 민간요법으로 치료된 것은 대부분 실제 암이 아닌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은 오히려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주의를 해야 한다.

맹목적으로 민간요법에 얽매기보다 전문의의 조언에 따라 치료계획을 세우고 순응하는 것이 최선의 치료법이다.

(한국일보 2002.2.14)